

“이유 있는 1등”... 기아 대표 준중형 SUV의 귀환

‘더뉴 스포티지’ 시승기

외·내부 미래지향적 디자인 적용 하이브리드, 자연스런 동력전환 다양한 주행·안전 사양 적용

사회 초년생의 인생 첫차부터 넉넉한 내부 공간으로 패밀리카로 인기 있는 기아의 대표 SUV ‘스포티지’가 3년 만에 새 얼굴로 돌아왔다. 스포티지는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를 달리며 기아의 효자 차종으로 이번 상품성 개선을 통해 웅장해진 외양은 물론 변속기 교체로 더욱 깔끔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뉴 스포티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해 신차 수준으로 내외장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특화 주행 기술을 적용했다.

18일 오전 11시 광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장성 백양사까지 왕복 약 80km 거리를 스포티지 1.6 HEV 시그니처 2WD A/T 프리미엄 옵션형으로 운행해 봤다. 이날 광주전남에 눈이 내리며 6개월 초보 운전자의 주행을 긴장하게 했지만, 새롭게 장착된 안전 사양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기술 덕에 운전 10년차 수준의 내공을 펼칠 수 있었다.

우선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패밀리 룩



기아는 18일 오전 광주 서구~장성 백양사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더뉴 스포티지’의 시승 행사를 가졌다.

기아 제공

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한 수직형상의 주간 주행등을 중심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기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더했다.

또 수평형 패턴이 적용된 대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고, 넓은 인테이크 그릴과 하단 범퍼의 수직적인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강인한 전면부 디자인을 구현했다.

측면부는 그릴의 수평형 패턴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신규 휠을 적용했으며, 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한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넓은 범퍼 형상으로 전면부와 통일감을 줬다.

더 뉴 스포티지의 실내는 기존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전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수평형상의 레이아웃에 하이테크한 디테일을 더해 완성

됐다. 기아의 최신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더블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적용해 보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구현했다.

또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가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크래시패드를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무드 조명을 더해 감성적이면서도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완성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모터 출력을 개선해 더욱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해졌다. 고속도로 주행 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액셀을 밟으면 동력 전환이 자연스러워 부드럽게 운행할 수 있었다. 연비는 주행 중 급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 들쭉날쭉 속도였음에도 편도 40km 주행 종료 후 13km/l 정도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이후 기아 오토랜드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는 16.1km/l를 보였다. 급가속, 급감속 횟수를 줄이고 앞차 간 거리를 잘 유지하고 관성 운행 시 20km/l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뉴 스포티지에는 초보운전자들의 구원인 다양한 첨단 편의·안전 사양을 대거 적용돼 안전하고 능숙한 주행이 가능했다.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핸들 그립 감지(HoD)와 위험 상황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진동 경고 핸들을 기본 적용했으며 국내에 출시된 기아 모델 중 최초로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운전자 전방주시 경고 카메라를 탑재했다.

준중형 SUV 1등답게 이번 상품성 개선 모델은 차급 이상이 공간감, 주행감 등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 첫차를 고심하는 초보운전자들에게 더뉴 스포티지를 가감 없이 추천하고 싶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신세계, ‘섬 도장찍기 챌린지’ 시즌3 성료

전남도 섬 홍보·방문 확대 목표 500여만원 전자책 이용권 기증

광주신세계는 전남도 소멸 위험 섬에 대한 홍보와 방문 확대를 목표로 한국섬진흥원과 진행한 ‘섬 도장찍기 챌린지’ 시즌3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목포시 한국섬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섬 신세계 도장찍기 챌린지 시즌3 선물 전달식에는 김성준 광주신세계 스토어전략팀 팀장, 남기상 한국 섬진흥원 교류협력실장, 이경석 전남도 섬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500만원 상당의 전자책 연간 이용권을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증했다.

섬 도장찍기 챌린지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위크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총 누적 43억 걸음을 달성해 처음 목표로 했던 5000만을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신세계와 한국 섬진흥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남지역 섬을 알리는 데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섬 도장찍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2022년 여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완도까지 전남의 섬들



을 대상으로 ESG사업을 운영해 왔다.

두 기관은 챌린지 참가자들 자연스럽게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방석과 손수건, 1만원 상당의 배달앱 이용쿠폰을 추첨을 통해 제공했다. 또 섬 주민들에게는 소금과 두유 등 식료품 등을 전달하며 전남의 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5월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던 완도 넓도 지역을 찾아 식수난 해결을 위한 800만원 상당의 생수 1만병(2l)을 기부하는 등의 도장찍기 챌린지 이외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한국섬진흥원과 협력해 시작한 섬 도장찍기 챌린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시즌3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광주신세계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네이처바이오랩 이아름(왼쪽) 대표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개최한 ‘제8회 광주전남 창업유관기관 입주기업 투자 IR Day’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발표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8년째 수도권서 입주기업 ‘IR-Day’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네이처바이오랩 등 10곳 참여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광주·전남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통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힘을 모았다.

18일 동강대에 따르면 동강대 BI센터는 최근 서울 여의도 FKI타워 데이지룸에서 초기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제8회 광주·전남 창업유관기관 입주기업 투자 IR(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

동강대는 지난 2017년부터 BI센터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IR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는 광주대·동신대·순천대 BI센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역 창업초기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 IR 행사에는 동강대 BI센터 입주기업인 네이처바이오랩(대표 이아름)과 쿠만(대표 임창현)을 비롯해 공동 주관기관 입주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동강대 BI센터는 투자유치 확산을 위

해 향후 IR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특허 등 사업화 자금, 입주 여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경우 동강대 BI센터장은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알고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8년째 IR 행사를 열고 있다”며 “창업 초기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제 투자 유치의 기회를 잡고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동강대 BI센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인쇄골목 축제’ 개최

소공인 교류 및 집적지 활성화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19일 ‘서남동 인쇄골목 축제’를 개최한다.

1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인쇄골목 축제’는 광주 동구 서남동 일대 인쇄거리 소공인들의 교류 및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19일 오전 11시부터 △푸드트럭 음식 무료 나눔행사

△성과물 전시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특히 인쇄골목 축제와 연계해 인쇄기업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 행사도 진행된다. 인쇄소공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인쇄골목 축제의 자세한 내용은 인쇄플랫폼 ‘활자활짝(www.hjhj.co.kr)’ 공

고/공지에서 볼 수 있다.

박영택 광주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인쇄 소상공인과 함께 소통·교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동행축제로 마련했다”며 “시민·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광주 동구 서남동 일원의 인쇄소공인을 대상으로 △인쇄소공인 역량 강화 △라이선스(서체) 지원 △인쇄기반 상품화 지원 △공동포장재 지원 △장비 및 시설 공동 활용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다운 기자**